

과총定總 상황...사업계획·예산 승인

해외 頭腦초빙 활용·과학기술아카데미 등 추진

신임감사 李弘祐·金眞一씨 선출



◇5백여명의 과학기술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金始中과기처장관이 격려사를 낭독하고 있다.

成회장 개회사 “남북과학기술 교류에 최선” 金장관 격려사 “21세기 초 선진7개국 도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월25일 외교안보연구원강당에서 제 29회 정기총회를 열고 9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고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李殷雄·鮮宇良國감사 후임에 李弘祐(한국농업과학협회장/서울대농생대교수)·金眞一(한국소방학회 회장/한양대공대교수)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과학기술정책개발기능강화 ▲학회육성 및 학술활동지원강화 ▲과학기술정보교류 및 국제협력확대 ▲재외고급인력의 유치활용 ▲과학기술홍보강화 및 풍토조성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 ▲남북교류 및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유대강화 ▲회원단체의 당면 과제수렴 ▲과총자율성 확립 및 자립 기반구축 등에 두고 주요사업으로 △과학기술정책조사연구사업 △(가)과학

기술아카데미 설치운영 △학회학술활동지원사업 △과총활성화 5개년계획수립·추진 △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개최 △재외과학기술자유치센터운영 △해외고급과학기술두뇌유치활용(Brain Pool제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과학의 날」행사주관 및 과학기술상 시상 △「과학과 기술」지 발간 및 과학기술대중화캠페인전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및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운영 △회원단체협력사업 △「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의 지속적 추진 △원로과학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金始中과기처장관을 비롯 閔寬植 명예회장·金東一 상임고문·成樂正 회장·鄭助英 상임부회장 등 과총회장단과 산하 회원단체 대의원 등 과학기술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權肅一 서울대교수의 「과학기술인 신조」 낭독으로 시작, 成樂正 회장의 개회사, 金始中과기처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는 다음 李傑三 사무처장의 회무보고 후 의안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成樂正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인의 총본산인 과총에서는 세계화·정보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2천년대 선진과학기술입국이라는 국가적 지상과제 달

성 및 학회·학술활동과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등 모든 연례사업을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재건의 중심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 남북교류를 위해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과학기술계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의 방북을 추진하는 등 각종 남북 및 범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교류사업을 민간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화를 통한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제도(Brain Pool)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해외고포과학기술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접목시켜 애로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전당인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과총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원로과학기술자문단의 풍부한 경륜과 새롭게 조직된 역동적인 과학두뇌집단인 「한국과학기술아카데미」와의 효율적인 접목을 통하여 고도의 생산성이 유발될 수 있도록 과총의 학술적 전문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金始中과학기술처장관은 격려사에서 "과총은 지난 28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정책대안의 제시와 학술활동의 진작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에 선봉장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치하하고 올해에도 "(가)한국과학기술아카데미설립추진,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

용제도,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남북민간과학기술협력 및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운영 등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어 "과기처는 세계15위권인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98년까지

650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연구비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4월까지 학회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우수학회에 대한 특별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가 되도록 학회·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有功인사 10명에 감사패 수여

9위, 21세기초에는 선진7개국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기본목표아래 금년을 과학기술도약의 시발점으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제반시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과총의 각종 사업 및 홍보·보도 등으로 크게 협조한 민자당의 金重緯·宋千永·河舜鳳·金斗桓·鄭必根의원과 安炳達정책연구위원, 韓哲正국회경제과학전문위원, 權海相경제기획원 과학기술담당서관, 李元浩 중앙일보기자, 尹津植한국경제 기자 등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회후 열린 축하연에서 金東一 과총상임고문·金始中과기처장관·成樂正과총회장·鄭根模고등기술연구원장(왼쪽부터)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특히 국가총연구개발비의 6.1%수준에 불과한 대학의 연구개발비를 97년까지 11%, 2001년까지 선진국수준인 15%로 증가시켜나가고 대학의 우수연구센터를 93년 30개에서 98년까지

총회가 끝난뒤 金始中과기처장관, 金鉉佑 재일과학회장 등 내외귀빈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축하연에서 참석인사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 및 과총육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57